

문화방송 우리말위원회의 방송언어연구 현황과 전망

최재혁

MBC 아나운서국 우리말담당부장

I. 서론

날로 심각해지는 국어 오염과 타락의 주범으로 방송이 지목된 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방송 주체의 관심과 지식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방송언어가 그대로 전파를 타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국어의 오염과 타락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어의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 방송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비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방송주체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청률 경쟁 및 시간, 인력, 비용 등의 문제에 밀려 있는 현실에서 이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작, 출연, 관리의 각 주체들이 방송언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주체와 조직 간 연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언어문화 발전에 여러 형태로 이바지할 수 있고 국어의 오염과 타락에 미친 영향력만큼 국어의 순화와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와 해결을 위한 방송사의 노력은 무척 중요하다. 특히 방송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 국어의 순화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방송언어 자체의 문제와 이에 따른 국어의 오염과 타락 문제를 인식해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공중파 방송사 내에서는 아나운서국(또는 팀)이 방송언어에 관련한 담당 부서라고 할 수 있다. 본래 문화방송에서의 언어 사용에 관한 모니터와 심의업무는 방송사내 심의부서에서 전담자를 두어 관리하게 하였으나 극히 제한된 인력구성 과 전문성 부족, 순환근무를 통한 인력배치 등의 문제로 중요성에 비해 하는 일은 극히 소극적이었고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에 문화방송에서는 2003년 10월 우리말 위원회를 발족시켜 그간 방송언어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아나운서국에 업무를 맡기게 되는데 우리말 위원회는 외부위원 6인과 내부위원 6인

으로 모두 12인으로 구성되며 박사급 외부 전문위원 3인이 지속성을 지닌 위원회의 각종 연구업무를 맡고 있다. 우리말 위원회는 방송언어와 관련한 자료와 심의 외에 구체적인 개선점을 연구하며 현업에 그 성과가 반영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1기에 이은 2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말 위원 (1기, 2003. 10. 9 ~ 2005. 9)외부 위원: 문화방송 라디오 본부장, 편성국장, 보도국장, 시사교양국장, 예능국장, 아나운서국장, 외부 위원: 이상규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위원장) 손희하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장소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최양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사무국장, 전문 위원: 한성우 가톨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현주 경북대 국어국문학 박사, 김숙정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2기, 2005. 10 - 현재), 서종학 영남대 국어교육과 교수(위원장) 김세중 국립국어원 생활부장, 장소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주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신지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배경미 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장>

우리말 위원회는 현업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보직국장들이 내부위원으로 임명되고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임명되어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현업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송언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원회가 협의하고 연구한 대부분의 주제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또 과거 일회성으로 방송현업부서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방송언어 관련 토의를 가진 적은 있으나 대부분 잘못된 방송언어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방송사의 입장차이만 피력한 채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데 비해 우리말위원회는 활동의 결과를 현업에 적용 발전시키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말 위원회는 매주 문화방송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주간 방송언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시 이 보고서를 분기별로 모아 지적된 방송언어의 오류를 유형화하고 그 빈도와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방송언어 오류의 전체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고 오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오류를 집중적으로 교정해야하는 지까지 조사해 연구의 실용성을 높였다. (주간 방송언어 보고서는 방송 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잘못된 언어사용을 바로잡고 바른 방송언어를 정립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일종의 방송언어 모니터제로 매주 하나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표기 발음 어휘 문장 면에서 오용사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런 주간 보고서에 지적된 방송언어 오용사례는 실제 방송 현장에서 발견되는 방송 언어의 오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것은 방송언어의 오류 실태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문화방송 우리말위원회의 그간 활동을 알아보는 것은 최근 몇 년간 방송언어와 관련해 방송주체들이 어떤 현안으로 고민했고 또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II. 텔레비전 자막의 오류실태 분석과 개선점 연구

텔레비전에서 자막은 더 이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다. 텔레비전 자막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이 자막의 양과 오락적인 기능 등 자막 사용의 여러 부정적인 면에 대해 비판을 가해 왔지만 텔레비전에서 자막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시청자들도 자막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막 사용의 단점을 지적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여 자막을 프로그램의 질이나 완성도를 높이고 재미를 더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막 사용의 여러 부정적인 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 온 것이 언어 규범적인 오류이다. 텔레비전의 언어는 매체의 공공성과 영향력 때문에 표준성과 규범성을 요구받으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국어 오염의 주범으로 질타를 받게 된다. 특히, 자막에서의 언어 오류는 시각적인 자막의 특성 때문에 음성으로 발화되는 언어 오류에 비해 더 쉽게 발견되며 더 강하게 각인된다. 자막 언어의 이러한 문자 언어적 오류는 방송 언어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 내용의 질까지도 의심받게 된다. 자막의 언어적 오류를 방송 언어 전반적인 문제에서 가장 단편적인 문제라고 낮잡아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자막의 언어적 오류는 맞춤법이나 어휘와 관계되는 단편적인 오류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편적인 오

류들은 수년간에 걸친 수많은 지적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방송 언어에서 자막의 오류들이 줄어들지 않는 한 방송 언어가 국어 오염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벗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한편으로 자막의 언어적 오류는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 전달의 측면에서 지엽적인 문제라고 무시되기도 한다. 사실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용법이 잘못된 단어 몇 개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 전달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막에서 이러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면 자막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문화방송 우리말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막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분기보고서를 통해 자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중 2004년 1분기 보고서 <자막 오용 실태와 극복 방안>에서는 자막 언어의 오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자막 맞춤법 교정기'를 개발하였다. 이 '자막 맞춤법 교정기'는 현재 문화방송 본사와 전국 19개 계열사, MBC 프로덕션 등 관계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방송 자막 언어의 교정을 위해 자막 맞춤법 교정기가 도입된 것은 국내 최초의 일로 이것은 자막의 오용을 바로잡고 방송 언어를 같고 닦겠다는 문화방송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일로 인해 타 방송사에서는 자막 맞춤법 교정기의 효용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시청자들은 언어적 오류가 없는 문화방송의 방송 자막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말 위원회는 자막 맞춤법 교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능상의 미비점을 찾아내어 방송 자막의 특성에 맞는 교정 엔진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과 자막 발생기가 도입되면서 자막을 입력하는 사람들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도 검토하였다. 성능이 뛰어난 맞춤법 교정기를 도입했다고 해서 자막의 언어 오류가 저절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방송 언어를 바로잡겠다는 문화방송의 의지와 노력이 무위가 되지 않도록 자막 맞춤법 교정기의 활용 상태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를 위해 자막 맞춤법 교정기 도입 이후의 개선 실태 조사와 자막 맞춤법 교정기 도입 이후 문화방송 자막 오류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오류의 변화를 측정하여 전체적인 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자막 오류의 개선 여부와 개선 정도를 결정하는 자막 교정기 활용도를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자막 맞춤법 교정기의 성능과 활용 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 자막을 의뢰하는 제작담당자들에게도 바른 자막 사용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

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원칙 >

- a) 역할: 자막은 영상과 소리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
- b) 분량: 자막의 사용 횟수와 자수(字數)가 적어야 한다.
- c) 주체와 목적: 자막은 시청자가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써야 한다.
- d) 사실성과 정확성: 자막은 사실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e) 전달력: 자막은 빠르고 분명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f) 규범성: 자막은 어문규정과 어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 작성 원칙 >

- a) 축약: 자막은 주어진 정보 전체를 압축하여 단어, 구, 문장으로 짧게 써야 한다.
- b) 발췌: 자막은 주어진 정보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나 인상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작성해야 한다.
- c) 삭제: 자막을 작성할 때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방해가 되는 요소는 삭제해야 한다.
- d) 첨가: 자막을 작성할 때 정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추가해야 한다.
- e) 수정: 자막을 작성할 때 적합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수정해야 한다.

정리한 일반 원칙과 작성 원칙은 자막의 용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용도에 따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반 원칙의 적용 >

- a) 정보의 함축적 전달: 1. 역할, 2. 분량, 5. 전달력
- b) 음성언어 보완: 1. 역할, 4. 사실성과 정확성, 6. 규범성
- c) 의도적 표현 수단: 1. 역할, 2. 분량, 3. 주체와 목적, 6. 규범성
- d) 부가 정보 및 세부 자료 제공: 1. 역할, 4. 사실성과 정확성, 5. 전달력

< 작성 원칙의 적용 >

- a) 정보의 함축적 전달: 1. 축약, 2. 발췌
- b) 음성언어 보완: 1. 축약, 2. 발췌, 3. 삭제, 4. 첨가, 5. 수정
- c) 의도적 표현 수단: 5. 수정
- d) 부가 정보 및 세부 자료 제공: 1. 축약, 2. 발췌

일반 원칙과 작성 원칙은 분야에 따라서도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각 분야에 따른 원칙의 적용은 그 분야의 첨예한 문제와 관련되는데 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도 분야와 시사/교양 분야에서는 제목의 형식과 내용 및 자막 편집의 필요성이 문제가 된다. 보도 분야에서 제목의 형식과 내용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서 형식적 제약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내용의 문제는 작성 원칙 모두를 적용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내용의 문제는 자막 편집의 필요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또한 보도의 효율성을 위해 작성 원칙 모두를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연예/오락 분야에서는 자막을 줄이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예/오락 분야의 자막은 필요성의 의심되는 자막이 많다. 따라서 일반 원칙에 따라 최소한도로 자막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자막을 작성할 때는 작성 원칙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규범성을 고려해 일상 언어에 미치는 악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야별 적용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분야별 적용 >

- a) 보도 및 시사/교양: 제목의 형식적 내용 문제 극복, 적절한 편집
- b) 연예/오락: 자막 사용의 최소화, 규범성 증시
- c) 스포츠: 외국 문자 및 외래 용어 사용 자제, 적절한 약어 및 약호정리

Ⅲ. 방송언어 실태지수 조사

‘방송언어 실태’란 비교적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언중들이 방송언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가치관, 방송언어를 생산하고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언어 능력(能力), 방송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여러 현상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 개념으로 일차적으로는 방송언어 실태를 종합적·추세적·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국어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연구는 여러 번 있었지만 방송언어에 한정하여 기초적이며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방송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도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방송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올바르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방송언어가 오염된다면 그 오염은 일상 언어의 오염으로 삼시간에 이어질 것이다. 방송언어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방송언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방송언어의 추세적인 변화를 측정하고 또 그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때 방송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살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방송언어 실태'라는 이름 아래 포괄될 수 있는 각각의 지표들에 대한 대표성 검토, 표준화, 지수화 등의 작업을 거쳐 <방송언어 실태지수>를 산출해, 방송언어 실태를 종합적이고 추세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차원이나 방송사 차원의 방송언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기준점을 제공하였다. 방송언어의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반성은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외래어 남용이 심각하다거나 어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다거나 하는 현상이 많이 있다 해도 그 정도성을 나타 내 주는 수치가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도출될 수 없다면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근거가 미약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대책 시행 후에도 객관적인 검증의 발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방송언어 실태지수'는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현상을 진단하고, 그 현상에서 관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 즉 정책의 수행 후에 효과적으로 정책이 수행되었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속적인 '방송언어 실태지수'의 산출은 방송언어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거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방송언어 문화에 대한 방송 종사자 및 시청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복적·주기적 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방송언어 실태지수'를 통하여 현재와 과거의 방송언어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종사자들과 방송 시청자들 모두 현재의 방송언어 실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로써 방송언어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방송언어 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언어 실태지수 산출을 위한 세부 항목과 방법론은 우선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1) 방송언어 전반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2)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3) 비교적 단기간(1~2개월)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4) 수집이나 통계처리가 용이한 자료이어야 한다.

(5) 1년마다 또는 2~3년마다 조사했을 때에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만큼 단기간의 변화가 뚜렷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송언어 실태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방송언어 실태지수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1) 방송언어 의식 지수
- (2) 방송언어 능력 지수
- (3) 방송언어 사용 지수

방송언어 의식 지수는 방송언어 관심도, 방송언어 노력도, 방송언어 교육필요 인식도, 방송언어 관리필요 인식도, 국어표기법 준수 의식도, 표준발음법 준수 의식도, 외래어·외국어 기피도, 비속어 기피도, 사투리 기피도, 정확한 단어사용 의식도, 정확한 문장사용 의식도 등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다. 방송언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의식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32명의 방송언어 종사자에게 미리 작성된 21개 문항을 지면을 통해 묻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방송언어 능력 지수는 말 그대로 방송언어 관계자의 방송언어 능력을 수치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방송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발음, 표기법, 정확한 단어 사용, 정확한 문장 사용의 영역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을 보게 하여 점수를 측정하였다. 방송언어 사용 지수는 실제로 사용되는 방송언어의 다양한 예들을 수집하여 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방송언어의 영역이 넓고 또 그것을 수치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표기, 발음, 어휘, 문장의 차원에서 방송언어에 접근하여 수치화하였다.

IV. 보도 고빈도 어휘 조사 및 말뭉치 구축

우리말위원회는 고빈도 보도어휘의 사용 실태를 살펴 보고 올바른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주행(2004)은 언어를 단순한 의미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고방식이나 가치 체계를 반영하는 문화적 또는 이념적 도구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특히 수용자에게 일방적이고 강행 영향을 끼치는 방송언어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보도 문장은 방송언어 중에서도 영향력이 더 큰 편에 속한다. 보도 프로그램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사용된 문장 역시 빠르고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이 많다. 시청자들은 보도 프로그램에 대

한 믿음을 보도 언어에까지 확장하게 되고, 보도 언어에 사용된 여러 표현을 비판 없이 수용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보도 문장에 사용된 표현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보도 문장은 단일의 사건을 취재하고, 정리한 뒤 그날그날 방송을 통해 발표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보도 문장 자체를 다 듣는 노력은 소홀해지게 마련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보도 문장의 파악력을 생각할 때, 정확한 보도 내용뿐만 아니라 정확한 보도 문장을 구사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간의 연구는 대체로 방송 및 보도 언어를 대상으로 눈에 띄는 오류를 지적하거나, 해당 오류를 시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는 지적된 단어나 표현이 보도 언어 전체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보도 언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사실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면 지적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은 보도 문장 말뭉치를 이용해 먼저 보도 문장에서 사용되는 고빈도 어휘를 추출하고 이를 일상 언어의 고빈도 어휘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보도 문장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단어가 일상 언어는 그리 많이 쓰이지 않거나, 반대로 일상 언어에서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인데도 보도 문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예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양쪽에서 모두 높은 빈도를 보이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의미로, 또는 서로 다른 구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말위원회는 이에

일상 언어와 그 쓰임에서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각 단어들의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고빈도 어휘는 대체로 보도 문장의 상투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특정 사건을 보도하는 특정 형식의 문장 또는 텍스트 구조가 고빈도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고정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는 어휘적인 측면에서 보도 문장을 다루고 있는 있으나 보도 문장의 구성도 함께 살펴 보았다. 상투적인 보도 문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문장이 고정화되면서 바른 국어 문장으로 여겨지지 않는 예들이 생기는 것은 옳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 문장은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이 쉽게 이해되려면 바른 문장의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말 위원회의 연구는 오류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보도 어휘 목록을 선정했다. 보도 문장에서의 고빈도 어휘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일상 언어에서의 고빈도 어휘 목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선정된 단어들의 실제 쓰임을 고찰하고 일상 언어에서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보도 문장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며 어떠한 구성을 이루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V. 방송언어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송언어 말뭉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2006년 MBC TV에서 방송된 시사교양, 연예오락 프로그램 중 시청률이 비교적 높은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사, 방송언어 말뭉치를 구축함으로써, 방송언어 실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방송언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방송언어 말뭉치를 활용한 방송언어 연구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방송언어 연구를 위해서는 방송언어 자료가 필요한데, 대본이 제공되는 일부 드라마와 뉴스를 제외하고는 방송언어의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방송언어 연구는 뉴스의 보도화법과 드라마 분석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 방송중사사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송언어에 대한 실태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방송언어 실태분석은 방송언어 말뭉치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예컨대 '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 '나'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도, 우선 '가'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객관적 수치가 제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두 말뭉치가 구축된 이후에나 가능한 것들이다. 방송언어 말뭉치 구축은 구축 대상이 구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방송인의 언어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학계의 말뭉치 구축은 대개는 문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따라서 구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방송언어를 구축하는 시도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나날이 변화하는 방송언어의 일면을 기록해 둬으로써 향후 방송언어 변천사 연구의 밑바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